

“폐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시급”

영농철 필요인력 적기 고용 만전

이영희 무주군의회 의원, 5분발언서 “전용수거함 확충하고 적극 홍보해야” 강조

이영희 무주군의회 의원이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관리실태가 국민건강과 생태계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5분 발언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은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295회 무주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폐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마련’ 5분발언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은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295회 무주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폐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5분 발언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은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국제사회가 폐의약품으로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경고하고 있고 무주군도 이 취지에 동의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폐의약품 처리가 아직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무주군내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보건 의료원이나 보건지소, 약국 등 의약품 취급기관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하지만 수거함이 대부분 무주읍과 면 소재지에 있어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의 주민이 오래된 약을 버리고자 일부러 발견을 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영희 의원은 이를 고려해 공동주택과 마을별로 폐의약품 수거함을 추가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업무는 무주군민의 보건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하는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군민들이 폐의약품 처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제차 강조하고 5분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수요조사 실시

진안군은 영농철 일손부족 농가들을 위해 외국인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중인데 2023년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다음달 1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수요조사를 접수받으며, 결혼이민자 가족의 친척 초청도 같이 신청 받는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농지 면적에 따라 기본 5명 신청이 가능하나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농가, 만 65세 이상 농업인, 근로조건 우수농가, 숙소조건 우수농가 중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농가는 최대 3명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고용주가 마련한 검증된 시설의 숙소를 이용할 수 있고, 고용주·계절근로자가 원할 경우 결혼이민여성 등 초청자의 집에서 숙식이 가능하다.

진안군의 농업인구는 9,209명으로 5년 전 9,851명 대비 6.5%가 감소했고, 고령화율은 55.3%로 전북 평균 53.6%,

전국 평균 52.8% 보다 높고 5년 전 48.8% 대비 6.5% 상승하여 해가 갈수록 농업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진안군은 올해 46농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149명을 배정 받아 운영 중이다.

또한 하반기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 사업에도 선정돼 진안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을 통해 운영하게 된다. 운영 인원은 베트남 근로자 10명이며, 운영방법은 단기 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9월 20일부터 90일 동안 운영한다.

전춘성 군수는 “농업인 고령화와 인구 소멸로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일손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추진하여 필요인력을 적기에 고용하여 인력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상전면, 면민의 장 수상자 3명 선정

진안군 상전면(면장 김요섭)은 지난 16일 상전면민의 장 수상자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상전면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애향장 김공홍(64·원수동마을), 공익장 윤석진(58·내송마을), 산업장 박화영(64·교동마을)씨를 면민의 장 수상자로 선정했다.

상전면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애향장 김공홍(64·원수동마을), 공익장 윤석진(58·내송마을), 산업장 박화영(64·교동마을)씨를 면민의 장 수상자로 선정했다.

애향장 김공홍씨는 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선행을 이어받아 면민의 날이나 마을 행사에 필요한 물품과 쌀을 꾸준히 기부해오고 있으며, 고향을 떠난 지금도 고향 사랑을 이어나가고 있다.

공익장 윤석진씨는 2018년부터 상전면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

고 있으며 주민과 행정의 편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솔선수범하고 있다.

산업장 박화영씨는 복분자 농사를 지으며 상전면 선진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면민들의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면민의 장 수상자는 오는 10월 1일 ‘제21회 상전면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면민의 장 수상자는 오는 10월 1일 ‘제21회 상전면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면민의 장 수상자는 오는 10월 1일 ‘제21회 상전면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면민의 장 수상자는 오는 10월 1일 ‘제21회 상전면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면민의 장 수상자는 오는 10월 1일 ‘제21회 상전면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면민의 장 수상자는 오는 10월 1일 ‘제21회 상전면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의회, 제341회 제1차 정례회 개최

2021회계연도 결산·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의

장수군의회는 9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5일간 제34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회기에 돌입했다.



장수군의회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제34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장수군의회가 시작된 후 첫 정례회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지난 1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천천면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세 건의 의안을 처리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경자)에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회부했다.

이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6일부터 21일까지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22일부터 29일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30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장정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군의 재정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세심하고 꼼꼼한 결산 및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장수우체국-한국우편사업진흥원, 업무협약

장수군이 지난 15일 장수우체국,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체국소포물 등 유통채널을 통한 장수농·특산물 판로 및 기획전 행사 지원 △우수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입점 농가의 농산물 물류비 부담 완화 △원활한 배송 협조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군은 이를 계기로 기획전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관내 농·특산물을 맞춤형으로 판매하고 우체국 소포물 입점을 확대해, 우수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은설 장수우체국장은 “앞으로도 장수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훈식 군수 역시 “이번 협약 체결이 농·특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장수우체국 및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협조 하에 우수한 장수 농·특산물의 온라인 유통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9월 정기본 재산세 18억원 부과

진안군은 올해 9월 정기본 재산세 3만2,676건, 18억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관한 것으로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방법은 토지는 인별로 합산해 부과되고 주택은 연세액 20만원 이상인 납세자에 대해 1/2금액이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에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에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반딧불농업대학 수강생·청강생 만족도 조사

무주군은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전문 경영능력, 기술력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반딧불농업대학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2022년 반딧불농업대학 사과·포도·청년농업인·치유농업과 수강생 및 청강생 148명을 대상으로 하며, 학과별 단독방을 이용

한 설문조사로 진행한다.

설문조사 내용은 △반딧불농업대학의 학습 만족도를 비롯해 △농업대학의 운영방향, △2023년도 농업인교육 편성 관련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결과는 2023년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돼 지역농업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